부활

| **김흥호** |

부활은 몸과 마음의 새로 태어남이라기보다는 절대자가 부여한 생명의 힘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누가복음 24:1~12

그리고 안식일에는 계명대로 쉬었다. 안식일 다음날 아직 동이 채 트기도 전에 그 여자들은 준비해 두었던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이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은 이미 굴러 나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으나 주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으로 나타났다. 여자들은 그만 겁에 질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여자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 나셨다. 그분이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무어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처형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해 주었다.
이 말을 듣고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무덤에서 발길을 돌려 열한명의 제자와 그밖에 여러 사람들에게 와서 이 모든 일을 알려 주었다. 그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였다.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 모든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자들의 이야기가 부질없는 헛소리라고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랬더니 수의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어떻게 된 일인가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오늘은 교회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명절이라고 그러지만 진짜 기독교의 명절은 이 부활절이 제일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언제나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부활하기 전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이 우리의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젊은이들이 많아서 우선 부활에 대해서 좀 변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젊을 때는 생각하기를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겠느냐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과학적인 사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신앙의 고백이지, 이것이 과학적인 사건이 되어서 연구, 조사, 실험의 대상이 되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진실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가 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과학적인 생각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술적인 생각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철학적인 생각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신앙적인 생각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종교적인 세계, 철학적인 세계, 예술적인 세계, 과학적인 세계, 그 네 가지 차원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야지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또 한 가지의 방법론만을 가지고 전체를 밀어 치우려는 것은 좀 모자라는 생각입니다.

음악을 과학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음악은 음악의 세계가 있는 것이지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안 되는 것이지요.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도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철학을 한다면

잘 안 되지요. 종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언제나 파스칼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네 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층마다 하나의 비약이 있어서 각 층이 다 독특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부활이라는 것을 문제 삼아야지, 그렇지 않고 사람이 정말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기쁨도 주지 않습니다.

부활이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성립되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토대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 토대입니다. 토대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집이지 그 집의 기초가 아닙니다. 그러나 집이라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라는 것이 그 밑에 있듯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큰 집이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밑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둘이 없으면 기독교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삶과 죽음에 대한 답변을 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해답을 주려고 애씁니다. 원효의 유명한 말 가운데 "일도출생사一道出生死, 일체무애인一切無碍人"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도'란 결국 '출생사'하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란 '출생사'하자는 것입니다. 생사를 넘어서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자는 건가. 일체무애인, 아무것에도 걸릴 수 없는 자유, 그것을 찾자는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차원에는 자연밖에 없습니다. 필연이 있을 뿐, 자유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차원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유입니다. 일체 아무것에도 걸리지 않는 자유, 그 자유의 창조,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은 자연의 창조입니다. 그것은 자연에 속해 있는 사람, 즉 아담입니다. 아담에 속해 있는 모

든 자손은 자연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그리스도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창조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유인의 창조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제1 아담, 제2 아담 그런 말을 합니다. 제1 아담이란 자연인이요, 제2 아담이란 자유인입니다. 완전한 자유인, 그것이 부활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라는, 완전한 자유인의 시작이 없으면 인류의 역사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류의 소망은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는 인류의 소망은 요새 말로 하면 오메가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오메가 포인트란 샤르댕의 자유인의 첫 시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자연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살아난다는 것은 자유인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사를 보면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도 살려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냈습니다. 나사로도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그때의 부활들은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다가 또 죽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벗어나는 것이지요.

성경에 기사를 보면, 예수님은 아무것에도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문을 모두 잠궈 놓았는데도 그냥 쓱 들어옵니다. 그런가 하면 갈릴리 해변가에는 예수님께서 생선 잡은 것을 구워 먹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잠겼는데도 들어올 수 있지만 생선 구운 것도 먹는, 어떻게 보면 영과 육을 다 초월한, 영으로서 육이며, 육이면서 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체靈體라는 말을 씁니다. 영체는 희랍 사람들의 영혼 불멸

과는 다릅니다. 영혼 불멸은 육체 속에 있던 영혼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불멸이지요.

또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와도 다릅니다. 그것은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애급의 오시리우스, 희랍의 아도니우스, 페니키아의 발은 모두 이런 식의 부활사상이지요. 애급의 부활사상이 얼마나 강했으면 피라밋을 지었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파묻어 놓고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피라밋, 그것과도 다릅니다. 그것은 자연신교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그런 사상을 하나의 인격화하고 상징화한 것이지 영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란 지금까지 인류가 가졌던 모든 사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창조이지, 지금까지 있었던 생각의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여튼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은 신앙의 밑바닥입니다.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한다는 것은 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까. 생사에 대한 하나의 답변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저는 인생은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 낙관하고 기쁘다고 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성경은 맨 처음 크리스마스 때부터 마지막까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을 빼놓으면 기독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왜 믿나. 단적으로 예수를 믿어보니 기쁘더라는 것이지, 그거 빼놓으면 뭐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매 주일 말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살면 우리도 부활해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것이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 쉽습니다. 걸어가는 것보다 버스 타는 것이 쉽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힘을 받아가지고 살면 사는 것이 다 쉬워요.

요. 이 기쁨이라는 말을 자꾸 하니까 기쁨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에서 기쁨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인생이 참 기쁘다, 인생은 참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상당히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앞길에 대해서도 굉장히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싶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나라를 사랑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가 될 것만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게도 16세기는 이탈리아 시대, 17세기는 프랑스 시대, 18세기는 독일 시대, 19세기는 영국 시대, 20세기는 미국 시대, 21세기는 일본 시대, 22세기는 한국 시대라고 합니다. 나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쳐다볼 때가 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나면 참 기쁩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이 기쁘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죽음에 대해서 늘 말합니다. 죽음은 인생의 시작이다. 인생은 40부터가 아니고 인생은 죽음으로부터다.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사실 불완전한 것입니다. 가짜라고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생이지만 기쁨이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진짜 인생을 한번 맛보고 살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만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진짜 인생은 역시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인생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보면 문제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운명을 안 사람입니다. 자기 운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지요.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하나. 자기의 운명과 지금까지 계속 전해 내려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이 일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는 자기의 운명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성경에 의해서 부활했다는 말을 자꾸 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의 일치를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요. 예수는 개인과 인류의 일치라는 역사적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이란 예수의 운명이요, 동시에 인류의 운명입니다. 이 운명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인생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생과 죽음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런 해답을 가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질 때 내 생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를 파고들어 가

면 결국 십자가에 도달합니다. 내 생의 기쁨의 원천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은 십자가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속죄라고 하는데 십자가 덕으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지요.

속죄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진리의 자각입니다. 십자가란 쉽게 말하자면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진리를 깨닫는 데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원천은 십자가입니다. 생의 기쁨을 법열이라고 하는데 진리의 깨달음이 없으면 법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열 없이는 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완전 또는 자유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남달리 자유로운 것을 자꾸 느낍니다. 그건 여러분도 경험해 보면 알 것입니다. 남들같이 그렇게 바쁘지도 않고 좀 한가해요. 우리는 별로 어려운 것도 없어요. 여러분 나 이렇게 설교할 때 뭐 어려워 보입니까. 난 설교 준비도 안합니다. 써 가지고 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와서 말하는 것이니까 이 이상 쉬운 것이 없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겐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내어놓는 것뿐이니까 어려울 것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특별히 신통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까? 그저 다 아는 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노래는 늘 아는 노래가 좋습니다. 우리가 연극을 해도 밤낮 「춘향전」, 「심청전」을 하는데 밤낮 보아도 좋지, 새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욱 좋아요. 나는 찬송가 495장을 부르는데, 이제 495장을 몇 번 불렀

으니 오늘은 그만 두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면 부를수록 좋아요. 나는 특별히 준비해 가지고 잘해 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지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왜 이렇게 쉬운가.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쉽게 해요. 쉬워진다는 말은 자유로워진다는 말입니다. 자유로워지고, 쉬워지는 데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부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잘나서 부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줘서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제2의 창조라고 그랬는데 제2의 창조를 누가 하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살면 우리도 부활해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것이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 쉽습니다. 걸어가는 것보다 버스 타는 것이 쉽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힘을 받아가지고 살면 사는 것이 다 쉬워요. 하나님의 힘을 못 받으면 설교도 못합니다. 설교를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아요? 신앙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지금의 생만을 사는 게 아니라 요다음 생애도 삽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삽니다. 그건 살아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지만, 죽어서도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 때는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을 주 니다. 나는 지금 살아서 하는 일보다 죽어서 훨씬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힘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일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일을 합니다. 그때는 더 큰 일을 합니다. 그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일하고, 죽어도 일한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요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살아서도 그리스도요, 죽어서도 그리스도입니다. 살아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도 사는 것이지요. 이 신앙이 없이는 일도출생사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을 가져야 일도출생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생을 살면서도, 저 생을 살면서도 완전한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이 생을 사는 것을 애벌레쯤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는 벌레가 기어 다니는 정도의 자유지만 이제 저 세상에 가면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과 같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라는 말을 썼는데 할 수 없이 천사라는 말을 썼지, 천사 이상의 자유를 가지고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바울 선생님께서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의 힘을 가지고, 너희의 몸도 살리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육체를 주셨지만 앞으로는 더 온전한 몸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 몸을 쓰고 살지만 앞으로는 더 완전한 몸을 쓰고 사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속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는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도 더욱 자유로울 것이라는 것을 내 속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끼면 무엇이든지 쉬워져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반드시 그런 일이 올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이 신앙으로 우리는 이생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느낍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느끼지만 앞에 오는 세상에 가서는 최대의 자유를 느낄 것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한 어떤 증거를 내 속에서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세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증거를 잡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느낄 때 여러분도 부활을 확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끝)

• 이 글은 『김흥호 사상 전집 –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흥호** | 다석 유영모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항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

빛 힘 숨(십자가 부활 승천)

요한복음 강해 (전5권) 세트

김흥호 저 | 사색 刊 | 56,000원

『김흥호 사상 전집』 제8권~12권이 출간되었다. 이번 책은『빛 힘 숨: 십자가 부활 승천』의 제목을 가진 요한복음 강해 다섯 권이다. 이 책은 일러두기에 소개된 것처럼 21장 81절로 구성되어 있다. 21장은 요한복음의 21장이며 81절은 81회의 강의를 말한다.

이 책은 저자 김흥호 선생이 1993년 3월 7일부터 1995년 6월 25일까지 이화여대 대학교회 연경반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강의했던 것으로 총 2년 반, 다섯 학기 동안 해온 81회의 강의들이다. 이 강의들을 학기 별로 나누어 전5권으로 출간하였다.

김흥호 사상 전집

기독교 설교집 세트(전6권) (CD 1장 포함)

김흥호 저 | 사색 刊 | 40,000원

저자의 강의와 설교 등을 모아 총6권으로 엮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에다가 풍부한 비유를 곁들여, 자신이 얻어낸 실천과 깨달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절묘하게 전달해온 저자가 펼쳐온 삶의 철학을 이어나간다.

(구성) 제1권『사람 삶 사랑』, 제2권『진리로 자유롭게 하리니』, 제3권『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4권『믿음의 힘』, 제5권『하루를 사는 사람』, 제6권『영원을 사는 사람』